

Issue Comment

2023. 01. 05

전기전자

중국 11 월 스마트폰 출하량: 재고조정 긍정적



전기전자/IT부품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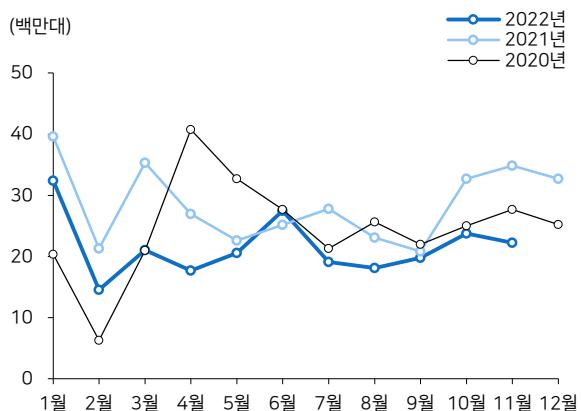
Analyst 양승수

02. 6454-4875

seungssoo.ya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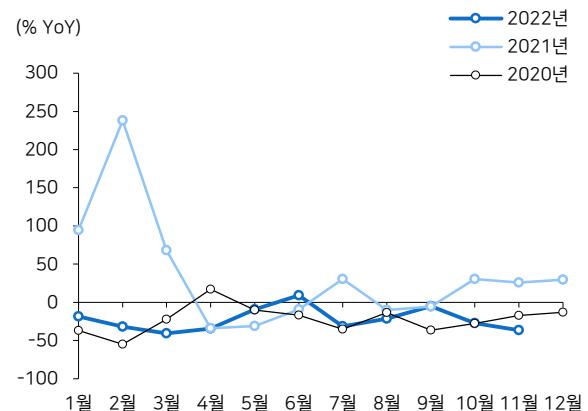
- 중국 11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222만대(-6.6% MoM, -36.2% YoY) 락다운 이슈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와 중국 내 강한 재고 조정으로 5달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 기록
-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Local 핸드셋 출하량은 314만대 (-58.4% MoM, -56.7% YoY) 기록. 점유율 기준 13.5%(전년도 11월 점유율 20.6%)
- 9월, 10월, 11월 Non-Local 핸드셋 합산 출하량은 1,328만대로 작년 1,917만대 대비 -30.7% 감소. 10월 중순 이후 코로나로 발생한 폭스콘 정저우 공장 생산 이슈 영향 지속
- Apple을 제외한 Local 브랜드의 핸드셋 출하량은 2,010만대(+19.6% MoM, -28.2% YoY) 기록. 점유율 기준 86.5%(전년도 11월 점유율 79.4%) 아이폰 생산이슈에 따른 반사수혜로 파악
- 5G 단말기 출하량은 1,791만대(-8.2% MoM, -38.2% YoY) 기록. 아이폰 14 생산 이슈로 인해 부진 전체 모바일 폰 중 5G의 비중은 77.1%(최근 1년의 평균 비중은 78.6%)
- 11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43개로 두달 연속 증가. 5G 신모델은 26개로 전체 스마트폰 신모델의 60% 차지
- 11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2,290만대 전후로 파악되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 조절을 통해 재고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향후 핵심은 12월 이후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 판매량을 통한 재고조정 강도. 12월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12월 7일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강조해왔던 제로코로나가 폐지된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중국 스마트폰 세트업체가 지속적으로 출하량 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12월에 예상보다 많은 재고소진이 발생한다면 내년 중국 스마트폰 업황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

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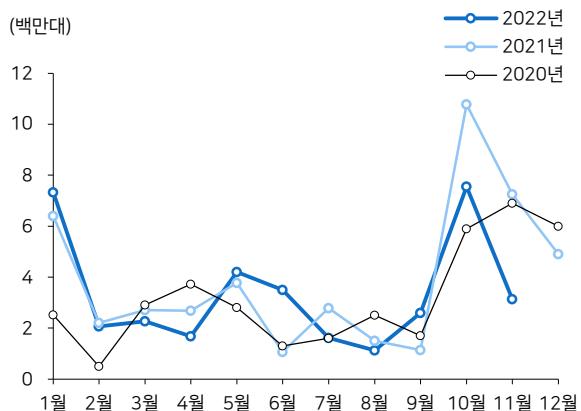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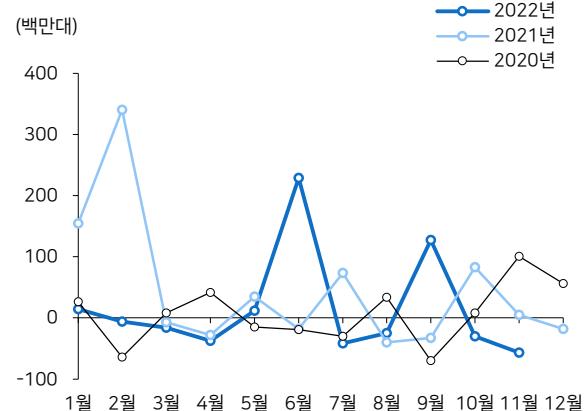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Non-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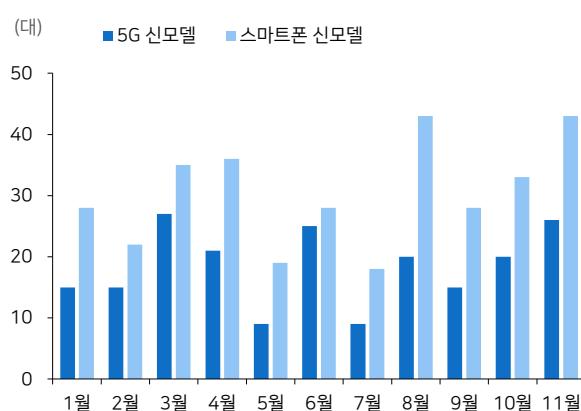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Non-Local 브랜드 YoY 성장을 비교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내 신모델 출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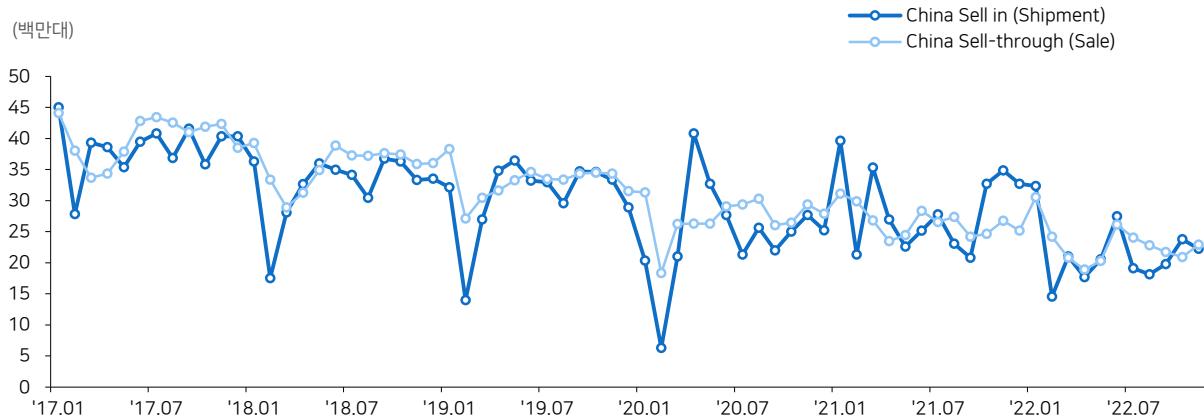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모바일 폰 내 5G 비중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 채널재고 소진 현황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